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9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얼음 깨기

‘행복에 관한 이야기’

- 1_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 2_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는다면 언제였나요?
- 3_ 나에게 있어 행복이란 _____ 입니다.

경배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소식

1. 새로운 시작 & 새로운 필요

새로운 예배실에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같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1층 공간 리모델링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마음 모으며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3. 성품채플

전주대학교 청년을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 전하는 소그룹채플 리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화요일 오후 4-5시 일정이며 하림미션홀에서 함께합니다.
함께하기를 희망하시는 성도님께서서는 김지훈 목사(010-5025-1824)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행사

9월

- 3일 하반기 양육훈련 시작
- 9일 부부세움학교 시작
- 10일 어와나 2학기 개강
- 28-30일 추석 연휴

10월

- 26,28일 성례 교육
- 29-11/1 더말씀으로 가을사경회
하나복DNA네트워크
김형국 목사
“교회를 꿈꾼다”

선교

[김영진 선교사]

베냉

1. 대통령이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정치를 하도록
2. 코로나의 위협이 물러가도록
3. 베냉에 만연한 영적 혼합주의, 각종 이단들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 영광 가득한 나라 되도록
4. 매일 주님과 더욱 친밀함 누리도록
5. 다하라 형제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도록

한문장 큰 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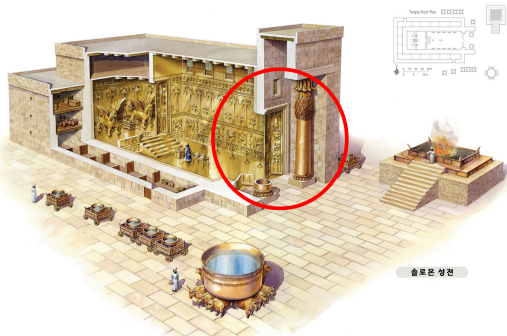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D.L 무디 (1837-1899)
목사, 복음 전도자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열왕기상 7장 21절)

솔로몬은 성전의 기둥과 금속 장식을 만들기 위해 두로에 있는 놋 대장장이 히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를 모든 놋 일을 하는데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있고, 오랜 시간 익히고 습득한 기술과 지식도 많이 있었습니니다.

그가 만든 놋 기둥은 높이가 18규빗(9m) 둘레가 12규빗(6m) 였습니다. 놋 기둥은 성전 입구의 주랑 양쪽에 세워졌으며 성전을 둘러싼 주랑과 놋 바다가 이어집니다.



이 모든 내용은, 설계도나 그림이 아닌 글로서 오늘날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려내기는 어렵 습니다. 특히,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의 정확한 모양 및 연결 부분은 더욱 그러하지요 이 말씀의 내용을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함 께 생각해봅니다.

1_히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히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지며, 히람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총명과 지혜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의 문 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재능을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나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나에게 주신 재능/시간/은사는 무엇일까요?

[질문] 나에게 맡기신 자리/사역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함께 섬기고 있는지 나누어봅니다.

2_성전의 의미

더온누리교회 역시, 건축물만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립의 가치를 담고, “더 예수님처럼”의 의미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를 고민하였습니다. 지하에 다음과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출애굽 후 480년만에 완성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성막과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 40년을 나아갔습니다. 솔로몬 역시도, 오랜 기간 이 지난 이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드러낼 것인 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 둥을 통해 ‘그의 힘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나요? 같이 나누어봅니다.

[나눔] 지하에 있는 ‘테라코타’를 목장에서 같이 함께 보고, 함 께 마음을 나누어봅니다.

3_야긴과 보아스 -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확실한 두 기둥은 무엇일까요?

말씀 -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하기를 결심하면서 그 권능으로 함께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 -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가고 유지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기둥을 다시 한 번 붙잡 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길을 나아갈 때입니다.

[나눔] 나에게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은 어떻게 다가오나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나눔 주일 말씀 [그의 힘으로 세우신다 / 열왕기상 7:13-26]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시다.

기도	나에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섬기겠습니다.
	성전의 의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안에서만 세워짐을 믿습니다. 이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